

증례논문에 나타난 사상체질진단의 특징 및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반덕진 · 이승윤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about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and research trends in the case reports

Ban Duk-Jin, Lee Seung-Yun,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ives

We analyzed the case report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o study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and characteristic of clinical practice.

2. Methods

It has been examined 138 case reports of Sasang Constitution society published from 1994 to 2008. We analyzed. patient's number, publication year,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title's characteristics and bases of constitution diagnosis.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In the analysis of patient's number, 1 case report was almost part of the case reports, and the case reports were many published after 2001.
- 2) In the analysis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was the most Sasang Constitution, and Tae-umin was the next one and Soeumin, Taeyangin followed them.
- 3) In the analysis of the journal's title, Sasang Constitution, disease and symptom of Sasang Constitution were more important than prescription recently.
- 4) In the analysis of the journal's purpose, unique disease and response of treatment were almost part of the case reports.
- 5) In the analysis of diagnosis bases, subjective bases were more important than objective bases and Sasang Constitutional drug response. therefore we should do researches in objective bases and drug response in the future.

Key Words : Skin Disease, Streptococcus Pyogenes, Hyangsayangyui-tang, Requisite qi(保命之主), Sasang Constitutional Treatment.

• 접수일 2009년 06월 25일; 심사일 2009년 07월 09일;
승인일 2009년 08월 07일
• 교신저자 : 박성식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31-710-3723 Fax: 0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ac.kr

I. 緒 論

의학연구 논문은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종설(review article)은 다른 곳에 이미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설명적 또는 해석적인 요약문이며, 원저(original article)는 다른 곳에는 보고한 적이 없는 수집된 자료결과, 결과에 대한 분석, 결론을 포함하는 연구물이고, 증례보고(case report)는 하나 또는 수명의 환자에서 이루어진 관찰로서 집단으로 모으거나 분석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언급된 것이다¹.

의학논문의 목적은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새로운 의학적 지식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여러 사람의 비판과 토론을 거쳐 그 사실의 유용성이 검증된 후 실생활에 응용됨으로써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는데², 그 중 증례보고는 환례를 보다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임상 논문에서 주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게 된다³.

1990년도 이후 SCI 한국의학논문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⁴, 사상체질의학회지는 1989년 1권 1호가 발행된 이후 매년 1권씩 발행되었고, 1995년부터는 매년 2권, 2001년부터는 매년 3권씩 발행되었고,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03편의 논문이 학회지에 발표되었다⁵.

사상체질의학회지에서는 1994년부터 증례보고를 처음 게재하였다. 이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된 사상체질의학회지 임상연구 논문 332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증례보고는 125편으로 전체 중 37.7%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증례보고가 사상체질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체질진단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증례보고의 사상체질진단근거 및 四象人 분포, 處方, 病證, 보고 목적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기에 저자는 사상체질의학회지에 발표된 증례보고를 연구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증례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연구대상

1994년 2008년까지 사상체질의학회지에 발표된

증례보고 논문 138편을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보고된 증례보고의 환자수, 연도별 발표 현황, 발표된 사상체질별 분포를 분석하였고, 발표된 논문의 제목을 통하여 양방 병명 및 사상인 병증, 사용된 처방, 논문의 보고 목적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상체질진단근거는 容貌詞氣, 體形氣像, 性質才幹, 素症, 顏面寫眞, 體幹計測, QSCCII, 說問紙, 體形映像, 音聲分析, 顏面計測의 총 11가지로 분류하였으며, 容貌詞氣, 體形氣像, 性質才幹, 素症은 주관적인 진단근거로 顏面寫眞, 體幹計測, QSCCII, 說問紙, 體形映像, 音聲分析, 顏面計測은 객관적인 진단근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II. 結 果

총 139편의 증례보고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 case report가 108편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2 case report가 13편, 3 case report가 8편, 4 case report가 2편, 5 case report가 2편, 환자수가 6명이 넘는 증례보고로는 (Table 1)

논문의 발표연도를 주로 분석해 보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15편, 2000년 6편, 2001년 12편, 2002년 18편, 2003년 18편, 2004년 15편, 2005년 19편, 2007년 14편, 2008년 14편으로 2002년, 2003년, 2005년에 증례보고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을 볼 수 있었다.(Table 2)

증례 보고 중 四象人의 분포를 살펴보면 少陽人이 55편, 太陰人이 41편, 少陰人이 27편, 四象人이 혼재된 경우가 8편, 太陽人이 6편, 四象人 분류를 알 수 없는 보고가 1편이었다.

Table 1. The Number of Patients in the Case Reports

Patient's number of the case reports	Number
1 case	108(78.3)
2 case	13(9.4)
3 case	8(5.8)
4 case	2(1.4)
5 case	2(1.4)
Over 6 case	5(3.6)

Unit: Number(%)

Table 2. Publication Year of the Case Reports

Publication year	Number
1994-1999	15
2000	6
2001	12
2002	18
2003	18
2004	15
2005	19
2006	7
2007	14
2008	14

Table 3. The Analysis Characteristics of the Case Reports' Titles

Characteristics	Number
Sasang Constitution	100
Prescription	35
Disease (Western medicine, Sasang Constitution, all)	99 (84, 21, 4)
Sasang Constitution and Prescription and Disease	21
Only Sasang Constitution and Prescription	5
Only Sasang Constitution and Disease	56
Only Prescription	7
Only Sasang Constitution	18
Only Disease	21
None	7

제목을 분석한 결과, 四象人을 언급한 경우가 100편, 처방을 언급한 경우가 35편, 양방병명 및 四象病證을 언급한 경우가 99편이며, 양방병명을 언급한 경우가 21편, 四象病證을 언급한 경우가 21편이며,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을 모두 언급한 경우가 4편이었다. 四象人, 處方,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을 모두 언급한 경우가 21편, 四象人과 處方만 언급한 경우가 5편, 四象人과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만 언급한 경우가 56편, 處方만 언급한 경우가 7편, 四象人만 언급한 경우가 18편,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만 언급한 경우가 21편, 四象人, 處方,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7편이었다. (Table 3)

제목에 나타난 四象人, 處方, 洋方病名 및 四象

病證에 대해서 발행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발표된 논문에서는 四象人과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보다 處方을 보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四象人과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에 대한 보고가 많아졌다. (Table 4)

제목에 표현된 四象病證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少陽人은 結胸證 2편, 亡陰證 4편, 脾受寒表寒病과 表病證 각 1편씩, 消渴證 1편, 胸膈熱證과 中消證 각 1편씩, 陰虛午熱證 2편으로 총 13편, 少陰人은 亡陽證 2편, 鬱狂未證 1편과, 少陰病 1편으로 총 4편, 太陽人은 噎膈證, 裏病證, 解休 兼 噎膈證 각 1편씩 총 3편, 太陰人은 背傾表病 1편을 언급하였다. (Table 5)

제목에 표현된 處方名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少陽人 처방이 23편, 太陰人 처방이 9편, 少陰人 처방이 3편, 太陽人 처방이 1편이었다. 地黃白虎湯이 총 4례로 가장 많이 언급된 처방이었다.

증례보고 목적에 따라 분석을 하면, 특이한 질환에 대한 보고가 74편, 치료반응에 대한 보고는 55편, 진단에 대한 보고 9편으로 특이한 질환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진단근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진단근거가 언급된 논문이 125편이며, 어떤 진단근거도 언급되지 않은 논문이 13편이었고, 진단근거가 언급되지 않은 논문의 발행연도별 분석한 결과,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발표된 15편 중 10편, 2001년에 발표된 18편 중 2편, 2007년 14편 중 1편에서 진단근거가 언급되지 않았다.

진단 근거를 분석한 결과, 體形氣像 115편(83.3%), 容貌詞氣 107 편(77.5%), 性質才幹 106편(76.8%), 素症 95편(68.8%), QSCC 65편(47.1%), 顔面寫眞 47편(34.1%), 體形映像 23편(16.7%), 體幹計測 21편(15.2%), 說問紙 13편(9.4%), 音聲分析 4편(2.9%), 顔面計測 1편(0.7%)이었다. (Table 6), (Fig 1)

體形氣像을 진단근거로 사용한 115편 중에서 체격이라고 언급한 경우가 2편이 있었으며, 性質才幹을 사용한 106편 중 성격이라고 언급한 경우가 3편, 성정이라고 언급한 경우가 1편이었다. 體形映像 23편 중 DITI을 사용한 논문이 1편, 모아레를 사용한 논문이 1편, 컴퓨터 체형을 사용한 논문이 1편이었고, 설문지 13편 중 QSCC I을 사용한 경우가 1편, QSCC I

Table 4. The Analysis of Titles' Characteristics Year-on-Year

Publication year	Sasang Constitution	Prescription	Disease
1994-1999	5	7	5
2000	6	3	4
2001	9	2	8
2002	11	6	14
2003	16	7	15
2004	10	2	11
2005	18	2	16
2006	6	0	5
2007	8	4	11
2008	11	3	11

Unit: Number

Table 5. The Analysis of Symptoms in Titles

Sasang Constitution	Disease		
	Exterior	Interior	Total
Taeyangin	0	3	3
Soyangin	8	5	13
Tae-umin	1	0	1
Soeumin	3	1	4

Unit: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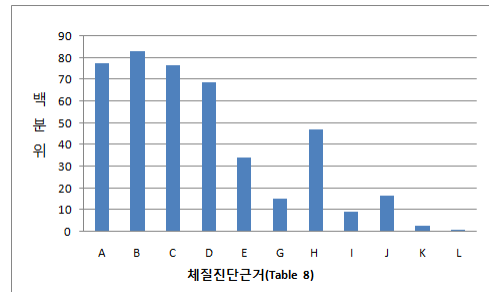


Fig 1. The statistics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bases

Table 6. The Analysis of Constitution Diagnosis Bases in the Case Reports

	A	B	C	D	E	G	H	I	J	K	L	N
1994 - 1999	1 (6.7)	2 (13.3)	3 (20)	0	0	1 (6.7)	0	0	1 (6.7)	0	0	15 (100)
2000	3 (50)	5 (83.3)	5 (83.3)	3 (50)	1 (16.7)	1 (16.7)	2 (33.3)	1 (16.7)	2 (33.3)	0	1 (16.7)	6 (100)
2001	7 (58.3)	9 (75)	9 (75)	6 (50)	2 (16.7)	0	5 (41.7)	0	1 (8.3)	0	0	12 (100)
2002	14 (77.8)	15 (83.3)	15 (83.3)	15 (83.3)	5 (27.8)	0	13 (72.2)	1 (5.6)	4 (22.2)	0	0	18 (100)
2003	15 (83.3)	18 (100)	14 (77.8)	14 (77.8)	8 (44.4)	0	13 (72.2)	3 (16.7)	6 (33.3)	0	0	18 (100)
2004	14 (93.3)	14 (93.3)	11 (73.3)	11 (73.3)	5 (33.3)	3 (20)	10 (66.7)	2 (13.3)	1 (6.7)	0	0	15 (100)
2005	19 (100)	19 (100)	15 (78.9)	16 (84.2)	10 (52.6)	5 (26.3)	11 (57.9)	2 (10.5)	3 (15.8)	2 (10.5)	0	19 (100)
2006	7 (100)	6 (85.7)	7 (100)	5 (71.4)	3 (42.9)	2 (28.6)	0	2 (28.6)	1 (14.3)	0	0	7 (100)
2007	13 (92.9)	13 (92.9)	13 (92.9)	12 (85.7)	5 (35.7)	4 (28.6)	6 (42.9)	0	0	1 (7.1)	0	14 (100)
2008	14 (100)	14 (100)	14 (100)	13 (92.9)	8 (57.1)	5 (35.7)	5 (35.7)	2 (14.3)	4 (28.6)	1 (7.1)	0	14 (100)
Total	107 (77.5)	115 (83.3)	106 (76.8)	95 (68.8)	47 (34.1)	21 (15.2)	65 (47.1)	13 (9.4)	23 (16.7)	4 (2.9)	1 (0.7)	138 (100)

A: Physical Appearance(體形氣像), B: Features and way of speaking (容貌詞氣), C: Temperament and Talent (性質才幹), D: Ordinary Symptom (素症), E: Picture of Face (顔面寫眞), G: Body Measuring (體幹計測), H: QSCCII, I: Questionnaire (說問紙), J: Picture of Body (體形映像), K: Analysis of Voice (音聲分析), L: Face Measuring (顔面計測), N: Number of the case reports
Unit: Number(%)

Table 7. The Analysis of Bases Number Applied to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994-1999	3	1	1	0	0	0	0	0
2000	0	3	0	1	0	1	0	1
2001	1	1	2	1	4	1	0	0
2002	1	1	1	5	7	1	2	0
2003	0	1	0	5	6	4	2	0
2004	0	1	1	5	5	1	1	1
2005	0	0	1	3	7	6	1	1
2006	0	0	0	5	1	0	0	1
2007	0	0	1	2	4	6	0	0
2008	0	0	1	0	4	7	1	1
Total	5(4)	8(6.4)	8(6.4)	27(21.6)	38(30.4)	27(21.6)	7(5.6)	5(4)

The Classification by the bases number applied to constitution diagnosis(1 to 8 bases).
Unit: Number(%)

Table 8. The Analysis of Subjective Bases Number Applied to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One	Two	Three	Four
1994-1999	3	0	1	0
2000	0	2	0	3
2001	1	1	4	4
2002	0	1	2	13
2003	0	1	9	8
2004	0	0	6	8
2005	0	0	7	12
2006	0	0	3	4
2007	0	0	1	12
2008	0	0	1	13
Total	4(3.3)	5(4.2)	34(28.3)	77(64.2)

The Classification by the subjective bases number applied to constitution diagnosis(1 to 4 bases).
The subjective bases are Physical Appearance(體形氣像), Features and way of speaking (容貌詞氣), Temperament and Talent (性質才幹), and Ordinary Symptom (素症).
Unit: Number(%)

I 과 사상 I 변증내용을 같이 사용한 경우가 1편, TS-QSCD를 사용한 경우가 1편, 사상변증내용 I 을 사용한 경우가 3편, 의사결정나무법을 사용한 을 사용한 경우가 6편이었다.

사용된 진단근거의 개수는 5가지를 사용한 경우가 38편(30.4%)로 가장 많았고, 4가지와 6가지 사용한 경우가 각각 27편(21.6%)이었고, 2가지와 3가지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8편(6.4%)였으며, 7가지 사용한 경우가 7편(5.6%)이었고, 1가지와 8가지를 사용한 경우가 5편

(4%)이었다.(Table 7)

주관적인 진단 근거를 사용한 근거는 총 120편이었으며, 주관적인 근거 중 4가지를 사용한 경우가 77편(64.2%)으로 가장 많았고, 3가지를 사용한 경우가 34편(28.3%)이었고, 2가지를 사용한 경우가 5편(4.2%), 1가지를 사용한 경우가 4편(3.3%)이었다.(Table 8)

객관적인 진단 근거를 사용한 근거는 총 94편이었으며, 객관적인 근거 중 1가지를 사용한 경우는 42편(44.7%)으로 가장 많았고, 2가지를 사용한 경우는 34

Table 9. The Analysis of Objective Bases Number Applied to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One	Two	Three	Four
1994-1999	0	1	0	0
2000	0	2	0	1
2001	3	1	1	0
2002	8	2	3	0
2003	6	5	3	1
2004	9	1	2	1
2005	4	9	2	1
2006	4	0	0	1
2007	4	6	0	0
2008	4	7	1	1
Total	42(44.7)	34(36.2)	12(12.8)	6(6.4)

The Classification by the objective bases number applied to constitution diagnosis(1 to 4 bases).

The objective bases are Picture of Face (顔面寫眞), Body Measuring (體幹計測), QSCC II, Questionnaire (說問紙), Picture of Body (體形映像), Analysis of Voice (音聲分析), and Face Measuring (顔面計測).

Unit : Number(%)

편(36.2%)이었으며, 3가지를 사용한 경우는 12편(12.8%)이었고, 4가지를 사용한 경우는 6편(6.4%)이었다.(Table 9)

IV. 考 察

임상진료와 역학적 연구의 접목인 임상역학은 임상의학의 발전에 필수적 요건이며, 그 연구방법으로는 증례보고, 환자군 연구, 단면적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등이 있고⁶, 증례 보고는 실제 환례 중심의 침상 교육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임상 의학 논문에서 주요한 품목으로 자리잡았다³.

한의학에서는 현재의 증례보고와 유사한 醫案이 예로부터 있었다. 醫案이란 의사의 병증론치를 기록한 것으로 病案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症狀, 辨證, 立法, 處方, 用藥에 관한 사항 뿐 만 아니라, 환자의 姓名, 性別, 年齡, 職業 등까지 포괄하고 있으며⁷, 醫案은 형식이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형태로 내려왔다⁸. 또한, 『東醫壽世保元』의 治驗例에도 환자의 症狀, 診斷, 處方, 治療, 經過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증례보고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사상체질의학회지는 1989년 1권 1호가 발행된 이후, 1994년부터 증례보고가 학회에 발표되었으나 형식이 미흡하였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38편의

증례보고가 발표되었다. 이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된 사상체질의학회지 임상연구 논문 332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증례보고는 125편으로 전체 중 37.7%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된 138편의 증례보고를 분석하였다. 전체 138편의 증례보고 중, 1 case report가 10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1년 이후로 증례보고 논문이 활발히 발표되었으며, 2002년, 2003년, 2005년에 증례보고가 학회지에 많이 발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1995년부터 매년 2권씩 발간되었던 학회지가 2001년부터 매년 3권씩 발간되었고, 사상의학적인 진료가 늘어나 많은 진료 정보가 축적되었기에 증례보고 논문의 수가 많아졌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상체질과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증례보고가 학회지에 발표되었다고 생각된다.

증례 보고 중 四象人의 분포를 살펴보면 少陽人이 가장 많고, 太陰人, 少陰人, 四象人이 혼재된 경우, 太陽人, 四象人 분류를 알 수 없는 보고의 순이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 9에서 "太少陰陽人을 오늘까지 관찰한 결과 한 고을에 사람 수가 1만이라고 하고 대략 논한다면 太陰人이 5000명이고, 少陽人이 3000명이고, 少陰人이 2000명이며, 太陽人의 수는 극히 적어서 한고을에 서너명 내지 10여명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과 증례 보고에 발표된 四象人의 분포를 살펴보면, 오히려 少陽人,

太陽人 수가 많았고, 太陰人 수가 적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少陽人이 四象人 중 가장 辨證하기가 쉽기²⁾에 가장 많이 보고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少陽人이 太陰人에 비해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거나, 少陽人의 질병, 진단, 치료 등이 특이하여 발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에 분석한 결과,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증례 보고는 四象人과 洋方病名 및 病證보다 處方을 보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四象人과 洋方病名 및 病證이 處方보다 중시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四象人과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을 언급한 경우와 四象人과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만 언급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에는 處方의 활용을 통한 치료에 대한 증례보고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處方의 활용폭이 늘어나 處方의 활용에 의한 치료 보고 보다는 四象人에 따른 특이한 疾病 및 病證에 대한 보고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에 표현된 四象病證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少陽人은 結胸證, 亡陰證, 脾受寒表寒病, 表病證, 消渴證, 胸膈熱證, 中消證, 陰虛午熱證, 太陽人은 噎膈證, 裏病證, 解休兼 噎膈證, 少陰人은 亡陽證, 鬱狂末證, 少陰病, 太陰人은 背顛表病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병증에 대해 언급하였고, 少陽人 처방이 가장 많았고, 少陰人, 太陽人, 太陰人 순으로 많았으며, 少陽人 亡陰證이 4편으로 가장 많았다.

제목에 표현된 처방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少陽人 처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太陰人, 少陰人, 太陽人의 순이었으며, 다양한 처방이 활용되었고, 地黃白虎湯이 가장 많이 언급된 처방이었다. 四象病證과 處方에서 少陽人이 가장 많은 것은 四象人 중 少陽人이 가장 辨證하기 쉽기에 증례 보고가 많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증례보고 목적에 따라 분석을 하면, 특이한 질환에 대한 보고가 74편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반응에 대한 보고는 55편이었고, 진단에 대한 보고 9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로 특이한 질환과 치료 반응에 대한 증례 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단일 증례 보고가 108(78.3%)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단일 증례보고는 특이한 질병 및 임상 양상, 병증에 대한 보고 목적이 크므로, 질환 및 병증의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근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진단근거가 언급된 논문이 125편이며, 어떤 진단 근거도 언급되지 않은 논문이 13편이었고, 진단근거가 언급되지 않은 논문의 발행연도별 분석한 결과,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발표된 15편 중 10편(66.7%), 2001년에 발표된 18편 중 2편(11.1%), 2007년 14편 중 1편(7.1%)에서 진단근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점차 사상체질 진단근거를 기술하는 예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진단 근거를 분석한 결과, 體形氣像 115편(83.3%), 容貌詞氣 107 편(77.5%), 性質才幹 106편(76.8%), 素症 95편(68.8%), QSCCII 65편(47.1%), 顔面寫眞 47편(34.1%), 體形映像 23편(16.7%), 體幹計測 21편(15.2%), 說問紙 13편(9.4%), 音聲分析 4편(2.9%), 顔面計測 1편(0.7%)이었다.

體形氣像, 容貌詞氣는 外形, 性質才幹은 心性, 素症은 病證이므로, 체질진단근거에서 주로 外形, 心性, 病證의 순으로 중요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10은 QSCCII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 心性, 外貌, 病證의 순으로 사상체질진단기준의 중요도를 보고하였는데, 김10은 QSCCII의 설문자체가 心性을 위주로 구성되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11은 한방의료기관의 체질진단 항목에서는 체질약리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장11은 사상체질 진단을 전문가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추후약리반응을 통해 체질을 확인해야 정확히 체질이 진단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증례보고의 목적이 진단보다는 주로 질병 및 치료 반응에 대한 보고가 많아서, 체질약리를 진단 근거로 기재한 경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체질진단근거에 있어서 체질약리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관적인 진단근거인 容貌詞氣, 體形氣像, 性質才幹, 素症은 객관적인 진단근거인 QSCC

1)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2)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 少陽人 體形 上盛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而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

II, 顔面寫眞, 體形映像, 體幹計測, 說問紙, 音聲分析, 顔面計測에 비해 사상체질 진단근거로 많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상체질 진단에 있어서 주관적인 진단 근거를 객관적인 진단근거보다 중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관적인 진단근거는 주로 진료하는 의사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 근거가 되는데, 이5의 체질진단방법에서 전문가 진단에 의한 진단방법이 가장 많고, QSCC의 활용이 두 번째인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주관적인 진단근거에서는 4가지의 진단근거를 사용한 보고가 가장 많았으며,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才幹, 素症을 중요시 하였고, 객관적인 진단 근거에서는 1가지의 진단 근거를 사용한 보고가 가장 많았으며, QSCC II, 顔面寫眞, 體形映像, 體幹計測, 說問紙를 중요시 하였는데, 향후 증례보고의 사상체질 진단근거에는 객관적인 부분을 보다 많이 복합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1. 증례보고는 1 case report가 주로 보고되었으며, 2001년 이후로 많이 발표되었다.
2. 증례 보고의 四象人의 분포를 살펴보면, 少陽人이 가장 많았다.
3. 제목을 분석한 결과, 최근에는 處方보다는 四象人과 洋方病名 및 四象病證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으며, 四象病證과 處方의 보고는 少陽人이 가장 많았다.
4. 증례보고 목적에 따라 분석을 하면, 주로 특이한 질환과 치료 반응에 대한 증례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5. 체질진단근거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인 진단근거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진단근거는 적었고, 체질약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 증례보고에는 보다 많은 객관적인 진단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체질약리를 진단근거로 기재하고, 활용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 參考文獻

1. Shon DK, Song KJ, Jang SJ, Lee HS, Analysis of articles

-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1997;8(1):24-30. (Korean)
2. Min JJ, The Systemic Review's Adaption to Oriental Medicine-The Low Back Pain in The Journal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Dong-Eui University. 2002:1-32. (Korean)
3. Kwon HJ, Write and Publish a Medical Paper. Dankook University Press. 2004: 101. (Korean)
4. Lee CS, An Analysis of SCI Source Journals Where Korean Medical Papers Are Published. Their Characteristics and Holdings by Korean Medical Libraries.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97;24(2):73-83. (Korean)
5. Lee SW, Hwang JH, Yu JH, Oh SY, Joo JC, Jang ES. A survey on the Sasang Constitution clinical study-in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8;20(2):21-29. (Korean)
6. Kim YS, Epidemiological Review Case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Journal Korean Academy Family Medicine. 2001;5(2):26-31. (Korean)
7. Kwon BH, Koo BS, A Study of the Case Record in Neuro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997;8(1):215-235. (Korean)
8. Kim TH, Park YB, A Study of a Objective Method on Understanding Medical Records (I).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2000;4(1):51-59. (Korean)
9. Lee JM, Donguisusebowon. yu-gang publishing company, Seoul. 2003:276-278. (Korean)
10. Kim YW, Lee EJ, Choi SM, Jung SI, Lee YO, Jo HS, et al, The Study about The QSCC II For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Around The Analysis of subject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3;15(3):1-10. (Korean)
11. Jang ES, Lee SW, Yoo JY, Lee HJ, Hwang JH, Joo JC, A Study on the Priority Order of Sasang Constitutional Factors in Oriental Medical Clinic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8; 20(3):133-141. (Korean)